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제5권 제1호 2005년 3월

조선기생 및 평양기생학교에 관한 전통문화의 디지털콘텐츠 창작소재에 관한 연구

주정규
주정규게임콘텐츠&재미연구소
joojungk21@korea.com

Study on Creative Materials of Digital Contents Using Traditional Culture of Art School of PyungYang Ki-Saeng and Ki-Saeng of Chosun Age

Jung-Kyu Joo
JooJungKyu Institute of Game Contents & Fun

요약

조선시대의 기생의 기원과 제도, 기생의 역할, 평양기생학교를 통한 기생의 원래의 의미인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아티스트(Artist)임을 재조명하고, 기생학교의 제도와 규칙, 교육과정, 수업시간표, 졸업 앨범, 각종 사진첩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기생의 역할과 평양기생학교 등의 재조명 및 분석을 통하여 전통적인 문화를 디지털콘텐츠의 창작소재로 발굴하므로 이를 디지털콘텐츠인 게임콘텐츠, 디지털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화 할 수 있도록 소재화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조선의 기생의 아름다움과 아트적인 재능, 사회제도 및 기생학교 등을 발굴하여 원화기획(컨셉디자인) 및 디지털시나리오 화하므로 경제성이 강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며, 평양기생학교의 교육시스템, 교육내용, 학생 현황 등을 발굴하여 육성 및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의 제작 컨셉 도출 및 게임제작, 애니메이션 및 TV 드라마, 디지털 애니메이션 및 영화 제작의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re-lighting(reputation) that Ki-saeng is a artist in Chosun age to concern with history, social lives, role, art school of Ki-saeng and Ki-saeng and also is re-light and analysis educate system, rules, curriculum, time table of teaching, graduated album, photos of art school of Pyungyang Ki-saeng. And the using these traditional culture materials of Ki-saeng can create various digital contents of game contents, animation, drama, film and characters.

Specially, it is propose to use culture contents that creation and pick out of beauty, talent, social system and art school of Ki-saeng in Chosun age willing to use concept design, scenario of game, animation, drama and film etc.

Key Words: Digital Contents, Culture Contents, Art School of PyungYang Ki-Seang, Chosun Ki-Saeng, Concept Design, Game Contents, Song and Dancing, 조선해어화사, 고려여학, 조선미인도감, 기생의 경제학, 권번(평양권번, 한성권번 등), 주식회사 기성권번, 유녀, 기생, 기녀, 가무(歌舞), 서예, 문화원형

1. 개요

1.1 기생의 역사

기생의 역사를 집대성한 일제 강점기시대의 국학 학자인 '이능화(李能和)' 가 쓴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에 의하면, 해어화는 '언어를 풀이하는 꽃' 이라는 뜻으로 유녀(遊女), 기생(妓生), 기녀(妓女) 등으로 불리 우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직역조의 표현과는 다르게 '말하는 꽃' 으로 의역한 것이며, 중국에서는 기녀, 일본에서는 유녀, 한국에서는 기생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여러 호칭과 별칭이 있었으며, 은어나 속어의 종류도 많은 것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생의 기원(이능화 분류)은 신라시대 중엽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삼국사기" 의 신라본기 제24대 진흥왕 37년 봄에 "원화를 바치다" 라는 기록을 통해 여기에서 원화를 기생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원화(源花)는 화랑과 대조되는 의미로 원화는 여색을, 화랑은 미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남색을 일컫는다. 또한 기생은 기학의약(妓學醫藥)의 기술을 의미하고 가무에 뛰어난 장인이라는 의미에서 기생으로 불렀다. 즉 기학(妓學)은 의약술 이었고, 가무(歌舞)의 재주(妓)가 있다고 하여 기생이라고 하였으며 '지나(支那)' 의 기(妓)를 고쳐서 활용한 것이 기생의 어원이다.

반면, 또 하나의 기생이 기원을 고려시대로 견해가 있는데, 고려 태조 때 백제 유민들이 수척(水尺)으로 전락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수척이 된 백제 유민들을 강제로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노비로 산거나, 노비 가운데 외모가 특출하고 재주가 뛰어난 여성을 뽑아 예쁘게 화장하고 꾸며서 가무를 배우게 한 것을 "고려여악(고려여악)" 이며, 이를 기생의 기원이라는 근거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1.2 기생학교의 개요

기생학교의 기원은 고려여악(高麗女樂)에서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선의 기생문화는 고려왕조와 조선왕조에서 기생들의 아름다움 및 화려함과 시 창작, 서예, 노래, 춤, 기악 연주 등의 기예의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남성사회 중심의 사회제도에서 남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고관 양반들의 연회석의 자리에서 지체 높은 관리들과 문인들이 기생들에게 시문(한시와 정형시)을 지어 바치면, 교양 있는 기생들은 그 자리에서 시를 창작하여 화답하곤 했다. 고려왕조 때 교방(敎坊)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생들에게 노래와 춤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세워진 기생학교와 같은 기관으로 교방인 것으로 사료된다.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왕조 때부터 성행한 '팔관회(八關會)' , '연등회(燃燈會)' 및 '채붕(綵棚)' 과 같은 행사에서 기생들의 우아하고 요염한 노래와 춤을 왕후귀족들이 관람하고 즐겼던 것이다.

고려 문종 31년 2월, 궁궐에서 연등회가 벌어졌는데, 교방의 여제자 '초영(楚英)' 이 55명의 왕실연주단을 대동해 중광전에서 가무를 행하고, '군왕만세' 와 '천하태평' 의 네 문자의 춤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당악이라고 하는 가무극은 각각 하나의 플롯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신화와 관련된 내용의 가무극인 '헌선도(獻仙桃)' 로 18명의 무용단이 동원되고 '수연장(壽延長)' 에는 16명, '오양선(五羊仙)' 에는 18명의 무용단이 참여하여 화려한 군무를 연출하였다.[2]

2. 조선의 기생

1918년 경성의 '조선연구회' 에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 이라고 하는 서적을 출판하였는데, 발행인은 경성신문사로 312쪽으로 한쪽에 각각 2명의 기생(애기기생의 경우에는 3명씩)의 이름, 나이, 사진, 출신지 및 현주소, 특기 및 기생의 간략한 평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기생 도감이다.

한성권번 187명, 한남권번 79명, 대정권번 181명, 경화권번 40명, 대구조합 32명, 금천조합 3명, 동래조합 11명, 창원조합 2명, 광주조합 7명, 평양조합 7명, 진남포조합 3명, 수원조합 33명, 개성조합 3명, 인천조합 5명, 안성조합 5명, 연기조합 7명 등 총 605명의 기생들의 '미인보감;이다.

그림1. 진주권번의 기생과 교사

그림2. 기생학교 수업 광경

(1) 기생 이진봉(李眞鳳)

'이진봉' 은 경성의 대정권번 소속으로 22세의 기생으로 그녀에 관한 기록사항을 다음과 같다.

- 이름 : 이진봉
- 나이 : 22세
- 원적 : 평안남도 평양부 173
- 특기 : 시조, 서도잡가, 정재 등의 18종류의 춤
- 이진봉의 특기 등 평가내용

출생은 평양으로 나이는 22세이며, 동그랗고 하얀 얼굴, 세견의 몸은 가볍고 화사한 눈언저리는 시원하고, 춘산(春山)처럼 정이 깊으며, 구술 같은 목소리는 구름을 불러 내몰고, 연꽃 같은 발걸음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네. 이슬의 인생이 덧없다고들 하지만 형체와 그림자는 서로 딱 붙어 있네. 솜털 같은 구름인가 꽃비인가 오는 세월의 화려함도 한 순간에 지워버리네. 열세 살에 아기기생으로 들어와서 열일곱에 기생이 되었다. 시조와 속요가 장기이며, 십팔 검무 솜씨가 뛰어나다.([그림-5]참조)

그림3. 조선 기생의 거문고 연주 모습

또한, [그림-4]는 평양기생권번의 기생 김중월선의 사진이다.

그림4. 기생 '김중월선'의 얼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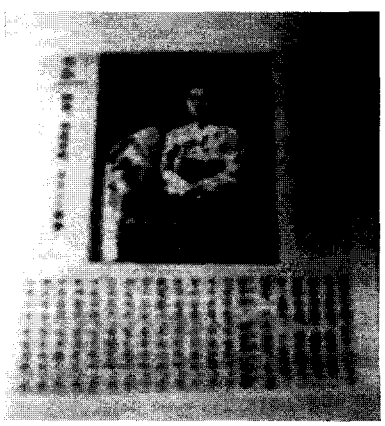


그림5. '조선미인보감'의 기생 '이진봉'의 이력

2.1 조선시대의 여악(女樂)

조선은 고려시대의 기생제도를 이어받아 '여악'을 설치하여 기생을 두므로 내연(內宴)에 사용하고, 진풍정(進豊呈) 또는 진연(進宴)이라고 하여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여러 군(郡)에 명하여 기녀(妓女)을 뽑아 악원(樂院)에 예속시켜 노래와 춤을 익히도록 하여 가무를 연출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여악에 동원한 가무단의 명칭과 참여한 기생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1) 헌선도(獻仙桃)

서왕모(西王母) 이야기를 악(樂)으로 표현한 여악으로 선려조(仙侶調)의 종류로 당나라로부터 고려로 전해진 것으로, 고려 최충헌이 여러 기생을 시켜 봉래의 선아(仙娥)가 내하(來賀)하는 모양을 가무를 연출하였는데 조선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가무를 즐기게 하였다. 18명의 기생이 참여하였다.

(2) 수연장(壽延長)

시대 미상으로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소(疏)에 부처 신봉(信奉)의 잘못을 논의하는데 이르기를 당나라의 덕종비의 아버지 왕경과 부마 고염 등이 성수(聖壽)를 연장하기 위하여 불상을 주조하여 바쳐 8명의 기녀들이 네 편으로 나누어 춤을 춤으로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축수연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오양선(五羊仙)

당나라의 이군옥(李?玉)의 '창포간(菖蒲間)'의 詩에 이르기를 '오양선은 어느 시대에 이 마을에 내려왔는가' 라고 하였으며, '주인환우기(註引?宇記)' 에는 고고가 초나라 재상이 되니 다섯 선인이 오색의 양을 타고 곡식 이삭을 가지고 내려 와서 주(州)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오양선이라고 불렀으며, 남월지(南越志)의 창포간은 희안현이 있는 안기생(安期生)라는 자가 심은 것으로 여기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양선 놀이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되며, 여기에 참여한 기생은 16명이다.

2.2 조선시대의 의녀(醫女)와 침비(針婢)

의녀는 시초는 조선조 태종 때 제생원사 허도의 건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부인 질병을 치료하는데서 비롯된다. 삼남지방의 관비 중 나이가 어리고 영리한 여성을 뽑아서 처음에는 제생원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혜민서에서 침구술을 가르쳐 한의녀를 겸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의녀는 침구통을 차고 다니게 했으며, 의녀를 내의원에 소속시켜 기업(妓業)을 겸행하게 하였으므로 약방기생이라 호칭하였다. 침선비(針線婢)는 궁사에 이름을 등록하게 하였으며, 침비는 상의사(尙衣司)의 소속과 기업(妓業)을 겸하게 하므로 상방기생(尙房妓生)이라고 하였다.

- 태종 6년에 의녀(醫女)의 설치
- 세종 5년에 삼남 동녀(童女)의 선상 교훈
- 경국대전의 의녀 기사(記事)
- 성종 때 의녀의 치료술
- 중종 2년에 의녀의 종량(從良)
- 명종 즉위 시 내시의녀(內侍醫女)의 궁의 출입허가
- 의녀 내정의 출입 허가
- 숙종 때는 의녀가 내전에 들러 왕비를 간호함
- 영조 14년 침비와 의녀의 각종 점(占) 풍류에 안석 시킴
- 영조 20년에 의녀의 수를 각 읍에 정하게 함
- 정조 때에 의녀의 복식을 지정함
- 정조 때에 의녀의 화찬(畵贊)

2.3 변방과 군에 기생을 배치함

조선시대의 변군(邊軍)과 각 읍(邑)에 기생을 배치하여 장사와 사신을 접대하게 하였다.

- 문종 때 명나라의 사신 접대에 기녀를 활용함
- 야인 및 왜의 연향(宴享)에 여악을 사용함
- 인조 때 청나라의 사신 접대함

3. 기생의 경제학

일본인 '이마무라 도모에' 라는 자는 '민속역사 조선만담' 이라는 책에서 '경성화류의 변천' 이라는 글을 기록하였다.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 에서 기생, 갈보, 은군자라고 불리는 여성들에 관하서 기록하고 있다. 1931년 당시에는 기생의 권번으로는 '한성권번(무교동)', '조선권번(다옥동)', '한남권번(공평동)', '경성권번(관수동)', '대동권번(서린동)' 등의 5개 권번이 있었다.

1931년 당시에는 한성권번, 조선권번 소속에 소속된 기생의 수가 각각 200명, 한남권번 70명, 경성권번 50명, 대동권번 15명 등 모두 535명이다. 조선요리 집은 명월관, 국일관, 장춘원, 고려관, 태서관, 식도원 등이 있었으며, 기생들은 권번을 통해 이들 요리집을 애용했다.

3.1 경성기생의 자산

1940년 8월에 출간된 "모던일본-조선판"(당시의 사장은 마해송)에는 '경성인류기생 자산순위'가 나와 있다. 동서로 나누어 가생들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산 순위	기생 이름	자산 금액	권번소속
1	김 월색	25만 엔	조선권번
2	강 산월	18만 엔	한성권번
3	차 능파	18만 엔	종로권번
4	우 산옥	10만 엔	종로권번
5	박일지홍	10만 엔	종로권번
6	최 비취	8만 엔	한성권번
7	도 월선	8만 엔	종로권번
8	정 매화	8만 엔	종로권번

〈표1〉 경성 기생의 자산

그 당시 경성 기생들의 평균 자산은 3,4만 엔으로 당시의 물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부를 누렸는가를 알 수 있다. 세안크림 1개 60전, 김광수의 소설 '유정' 1권 1엔 50전, 콜롬비아 레코드 6장 세트 12엔 50전, 6개 전지 들이 최고 대형 라디오 1대 207엔 등의 물가 시세이었다.

4. 평양기생학교

평양기생학교는 조선 평양의 주식회사 기성 권번(箕城券番)(평양부 신창리 17번지, 대표전화 1521번)의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성기생사진첩은 조선 사진공예사(평양부 상수부리 100번지)가 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본 사진집에는 '김복희' 외 162명의 기생 얼굴사진이 배열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기생양성소 규정의 소책자가 출판되어 있다. 기생학교는 권번에 부속하는 기생양성 시설의 하나로 '평양주식회사 기성권번 부속 기생양성소 규정'으로 제1조에서 제28조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4.1항은 특정 규정을 소개한 조목이다.

4.1 기생양성소의 규정

기생학교인 기생양성소의 규정은 특징되는 조항만을 열거한다.

제2조 본 소의 명칭은 주식회사 기성권번 부속 기생양성소라고 칭한다.

제4조 본 소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 소 장	1인	- 서화교사	1인
- 학과교사	1인	- 음악교사	1인
- 가무교사	1인	- 일본창교사	1인
- 잡가교사	1인	- 사 무 원	약간명

제5조 소장은 주식회사 기성권번 이사장이 겸한다.

제10조 직원의 급료는 매월 정액 20엔 - 50엔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12조 입소 인원은 연 60명으로 한다.

제13조 본 양성소에 입소하려는 자는 원서에 호적등본, 이력서를 첨부하고 부모형제 및 보호자의 보증을 요한다. 단, 2학기 이후에는 입소할 수 없다.

제15조 본 양성소의 졸업 연한은 만 3년으로 하고 매년 다음 3학기로 구분한다.

제1학기 4월 1일부터 8월 31일
제2학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제3학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제16조 교과 과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 가곡,수신,창가,국어,조선어,산술,서화
2학년 : 우조,시조,가사,국어,조선어,산술,음악, 서화, 수신, 창가, 무용
3학년 : 가사, 무용, 잡가, 일본창, 국어, 조선어, 산술, 음악, 수신, 창가

제17조 매년 3월 학기말에 수업과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 합격한 자에게는 수업증 또는 졸업증을 수여한다.

제18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학년 1개월 단위 일금 2엔 3학년 동일 일급 3엔
2학년 동일 일금 2엔 50전 입학금 일급 2엔

제19조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태도가 근면하며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24조 본 소의 경비는 수업료로 이를 충당한다.

단,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기성권번의 수입으로 보충한다.

제25조 본 소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술기예를 인정받으

려는 자에 대해서는 본소 졸업과 동등 정도의 학과 및 기예 심사를 통해 인정증서를 수여한다.

심사를 통해 인정 증서를 수여한다.

심사원은 본소의 교유선으로 한다.

심사 때는 소장 및 경찰관 입회하에 행한다.

제27조 본 규정을 변경할 때는 경찰서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실행한다.

제28조 본소에 비치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금전출납부, 비품대장, 소모출납부, 수업료수납부, 학적부, 성적고사부, 졸업생대장, 수업생대장, 수상생대장, 생도출석부, 직원출근부

기생학교는 기생양성소로 평양, 진주, 경성 등에 설립되어 기생이 양성되고 있었으며, 권번이 경찰서의 관할영역으로 그 감독, 감시 하에 있었다는 사실은 기생학교도 일제강점기하에서는 경찰 권력의 비호와 관리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14조와 제27조를 통해 알 수 있다.

4.2 기생학교 수업시간표

기생학교에 가르치는 과목은 무엇인가라는 기사가 "모던 일본-조선판"판에 실려 있으며, '한재덕' 이 평양기생학교를 취재하였는데, 재학생 수는 210명이며 3학년 수업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일본어), 조선어, 시독해, 가곡 등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게 된다.

요일	수 업 과 목						
월	국어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노래복습	
화	국어	서화	가곡	일본창	예법	음악	
수	작문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노래연습	
목	회화	서화	가곡	일본창	성악	예법	
금	시독해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노래연습	
토	시독해	서화	가곡	회화			

〈표2〉 평양기생학교의 3학년 시간표

시간표 이외의 과목으로 창가, 무용, 제2학년에는 시조, 악전이 있었으며, 대중적인 민요와 가곡 및 시를 음미할 수 있는 시조(詩調), 남도 노래(창), 아리랑 및 서도의 수심가(愁心歌), 도라지 타령, 에로틱한 속가까지 모두 배워야 한다. 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가곡류와 조선민요도 배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모던 일본' 중간호에서는 "평양기생, 일본 명사를 말하다"라는 좌담회가 있었는데, '한재덕' 의 사회로 12명의 기생이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 참석한 기생은 왕성숙, 임양춘, 한정옥, 안명옥, 차성실, 홍도화, 김중월선, 김련월, 김복희, 이복화, 조선녀, 최명주 등이 참석했다.

5. 조선기생의 올바른 개념 정립

기생(妓生)의 개념은 단어 및 한자의 뜻과 같이 妓(끼) 또는 기능(技能 ; Skill)으로 여기에서 妓는 기예(妓藝)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는 여성은 집에서만 일을 해야 하며, 글을 쓰거나,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기예를 발산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으므로, 규방여성은 기예를 다루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회의 통념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외교 사신이 오거나 중앙부서에서 지방으로 업무상 내려오는 경우, 또한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빨래를 해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기생은 필수적으로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도 기록문서나 역사서의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생은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라 춤을 추는 무용가, 노래하는 가수, 시조를 쓰는 문학가, 장구 및 가야금 등의 연주하는 악단 연주가, 서예를 쓰는 서예 문장가 등의 현대의 전문 연애인의 직업인과 같이 활동해 왔다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시를 잘 쓰면 시인으로, 노래를 잘하면 가수로, 춤을 잘 추면 무용가로, 서예를 잘 쓰면 문장가로, 악기를 잘 다루면 악기연주가로 한 가지의 기예만을 잘해도 전문가로써 대접을 받았었다. 즉 조선시대의 기생들은 시(詩) 잘 짓고, 서화(書畵)에 능하고, 가무(歌舞)에 뛰어 나며, 거문고를 잘 탔으니 종합예인 이었다. 뿐만 아니라 몸매 곱고, 미색이 뛰어나며, 예의범절까지 갖췄으니 유한정정(幽閑 靜貞)이요, 삼추명월(三秋明月)이라 하겠다.[3]

그 사실을 입증하는 기생으로는 송도삼절(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의 천하의 명기 황진이 사랑스토리, 선비 최경창을 사모하여 모질게 목숨을 내던진 홍랑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부안의 이매창(李梅窓)은 시서가무(詩書歌舞)에 능

하며 거문고도 잘 탔으며, 성격도 맑았다. 또한 퇴계 이이가 사랑한 두향(杜香) 이야기, 고려의 대문장가 인 이규보가 사랑한 제일홍(第一紅) 등 많은 기생들은 예의범절은 물론이요, 시(詩), 서(書), 예(藝), 악(樂), 가무(歌舞)에 능하고 서화(書畵)도 잘하는 재능 있는 현대의 탤런트와 같은 연애인이었다.

이상과 같이 기생은 그 시대의 사회상으로 비춰볼 때 하나의 현대의 연애인과 같은 존재로 생활인으로 직업인으로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지나친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재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6. 결 론(기생문화의 디지털콘텐츠로서의 창작소재)

지금까지 논의한 기생문화와 기생학교를 소재로 육성 및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의 창작 소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홍랑, 이매창, 황진이, 제일홍, 두향, 주논개(실제 기생이 아님, 최경회 장군 및 장수군 현감의 소실) 등 사랑스토리와 의기 등 기생에 얽힌 사랑스토리와 기예를 직업으로 기생들의 생활이야기, 국가를 지킨 의기 등의 전통 콘텐츠를 창작하여 활용한 캐릭터 상품화, 게임콘텐츠 상품화, 애니메이션 상품화, 드라마 및 영화, 만화, 음악, 공연, 에듀테인먼트, 인터넷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비디오 및 방송 등의 창작 소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실례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원형복원사업으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고증하여 문화콘텐츠 상품화 할 수 있는 2002년부터 4년째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생 외에도 다양한 전통적인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상품화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11] 참조)

6.1 2002년 문화원형 사업 결과

(1) 제주도 신화전설 등 9가지 이야기형 소재
(2) 고려시대 전통복식 및 소리은행 등 14가지 예술형 소재
(3) 조선시대 전투전술 및 전통놀이 문화원형 등 8가지 경영 및 전략형 소재
(4) 사이버 한옥세트 및 전통한선 라이브러리 등 8가지 과학기술형 소재

6.2 2003년 문화원형 사업 결과

(1) 조선시대 기녀문화 및 신라화랑 창작소재 등 5가지 이야기형 소재
(2) 한국미술 길상이야기 및 국악선율 배경음악 등 9가지 예술형 소재
(3) 조선후기 상업활동 및 한국무예 무과시험 등 4가지 경영 및 전략형 소재
(4) 사찰건축 디지털세트 및 조선시대 식문화 원형 등 4가지 과학기술형 소재

6.3 2004년도 문화원형 사업

(1) 남사당 문화, 인귀설화 및 강릉단오제 등 16가지 자유공모 과제
(2) 백두대간 음악지도 및 전통수렵 방법도구 및 9가지 지정공모 과제
(3)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후기 여향문화 등 20개 추가경정사업 지정공모 과제

6.4 2004년 추가경정 문화원형 사업 진행중

(1) 역사, 신화, 전설 등 5개 이야기형 소재
(2) 복식, 문양, 회화, 폰트 및 음악 등의 9개의 예술형 소재
(3) 전투, 놀이, 외교 등 4개의 경영 및 전략형 소재
(4) 과학, 기술, 건축, 지도 4개의 기술형 소재

다음은 실제 디지털콘텐츠화가 가능한 기생 캐릭터와 기생학교의 건축물 등을 표현한 이미지이다.

그림5. 조선시대의 기생의 디지털화 결과

그림6. 조선후기의 기생의 겨울나들이 복식

그림7. 조선시대의 검무도 기생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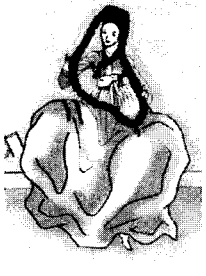


그림8. 단장하는 기생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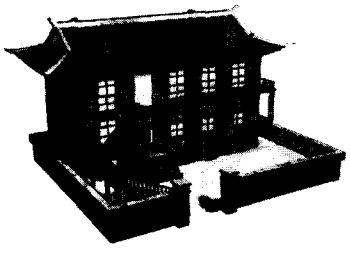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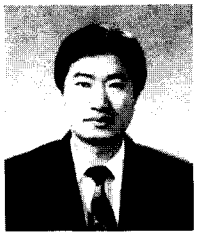


그림9. 평양기생학교의 디지털 복원 건물

그림10. 황진이 캐릭터의 상품화 이미지

[참고문헌]

1. 이능화(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2. Kawamura Ninato, "말하는 꽃 기생(妓生)", 作品社, 2001.
3. 심영구, "조선 기생 이야기", 미래문화사, 2003.
4.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5. 박종성, "백정과 기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6. 박병호, "한국의 춤", 집문당, 2002.
7.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황해문화, 2002 겨울.
8. 문현상, 김미숙, "권번이 무용에 미치는 영향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제20집.
9. 권행가,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10. 송문숙, "진주권번의 춤과 인물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철학회지, 2000. 12 제18권 2호.
11. 2004 문화원형 콘텐츠 총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11.



주 정 규

1979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84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92 Pacific Westem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1993 숭의여자대학 전산학과, 컴퓨터게임과 교수 및 학과장 역임
1999 청강문화산업대학 컴퓨터게임과 교수 및 학과장 역임
2001 (주)서울게임대학 학장/대표이사 역임